



※ 전시 서문 및 작가의 글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이미지 사용시 [제공 학고재, 사진 양이언] 표기 부탁드립니다.

##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11월 10일(목)부터 12월 10일(토)까지 **김은정**(b. 1986, 경남 거제) 개인전 《**매일매일 ( )**》을 연다. 지난 2021년 학고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에서 선보인 《가장 희미한 해》의 연장선상에서 마련한 전시다. 김은정은 매일의 날씨와 일상적 경험을 소재 삼아 작업한다. 삶 속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의 정서를 날씨의 요소에 빗대어 보는 시도다. 이번 전시의 제목 ‘매일매일 ( )’에 붙인 빈 괄호는 일상에 내재한 우연성을 상징한다. 자꾸만 어긋나는 기상예보처럼, 예측할 수 없는 매일의 의미를 비워 둔 공백으로 표현했다. 한편 영문 전시명인 ‘웨더랜드(WEATHERLAND<sup>1</sup>)’는 영국의 작가 알렉산드라 해리스의 책 제목을 차용한 것이다. 날씨와 연관된 문학 및 미술 분야의 일화들을 소개한 책이다. 날씨의 속성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의 제목으로 삼기에 알맞다고 여겼다.

김은정은 미술계가 주목하는 청년세대 작가다. 회화를 중심으로 판화, 도자, 시각디자인 분야를 넘나들며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작품세계를 키워가고 있다. 온난한 색채와 서정적인 이야기 구조를 지닌 화면이 특징이다. 편안하고 다가가기 쉬우면서도 특유의 독창성과 활기 어린 붓질이 돋보인다. 김은정은 지난 학고재 단체전 《살갓들》(2022)과 《아이콘》(2021)에서 작품을 선보여 폭넓은 관객층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작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작한 회화 및 오브제 작품을 다채롭게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학고재 신관에서 열린다.

## 2. 전시 주제

### ■ 날씨를 경유하는 우리의 삶 - 예측할 수 없어서 특별한 ‘매일매일 ( )’

우리의 삶은 날씨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같은 기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닮은 문화를 이루고, 언어와 정서를 공유한다. 그럼에도 각자가 매일을 겪어내는 방식은 지극히 개인적이다. 맑은 날에도 마음속에는 비가 내릴 수 있고, 햇빛 비추는 날보다 흐린 날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김은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보편적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으로서의 날씨를 회화의 소재로 삼는다. 이번 전시의 서문을 쓴 홍예지 미술비평가는 김은정의 작품 속 날씨가 두 가지 모습을 보인다고 언급했다. “지구라는 공통된 기반 위에서 객관적으로 공유되는 날씨가 있고, 그에 반응하여 시시각각 일어나는 주관적 날씨들이 있다. 이 두 종류의 날씨가 서로 교차하며 무수한 분위기가 생성된다. 우리는 바로 이런 분위기의 순환 속에서 하루하루 숨 쉬며 살아간다.” 김은정은 자신이 경험한 날씨, 방문한 장소, 겪어낸 사건들 위에 상상을 더해 그림을 그린다. 화면에는 구름이나 연기와 같은 형상이 자주 등장한다. 한 가지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 유연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요소이다. 전시명에 덧붙인 비어 있는 괄호와도 같은 의미다.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일상에서 마주한 “괄호 속 일들”을 회화의 언어로 옮긴 것이다. 구름은 기체와 액체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며,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면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상이다. 김은정은 보편적인 날들 속의 우연성을 화면 속 구름에 투영해 본다. 고정되지 않은 정체성을 지니기에 가장 큰 가능성을 품은 매일의 모양이다.

<sup>1</sup> Alexandra Harris, *Weatherland: Writers and Artists Under English Skies* (London: Thames & Hudson Ltd, 2015); 알렉산드라 해리스, 『예술가들이 사랑한 날씨』, 강도는 역(서울: 펄북스, 2018).

■ 연결된 세상, 다양성의 포용 – 가능성을 품은 구름과 여러 개의 해

태양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다. 바다는 하늘과 구분이 되지 않았다. [...] 수평선은 서서히 그 모양이 선명해지고 있다. 오래된 포도주 병의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유리병이 선명한 초록빛이 되듯이.<sup>2</sup>



도1.  
〈구름의 모서리〉(2022)  
캔버스에 유채  
259.1x581.7cm

※ 〈구름의 모서리〉(2022)는 조지아 오키프의 〈Sky Above Clouds IV〉(1965)를 오마주하여 그린 작품이다.

김은정의 작가노트 마지막 단락은 버지니아 울프의 책 『파도』에서 발췌한 글귀다. 이번 전시의 출품작 〈구름의 모서리〉(2022)<sup>1</sup>를 그리던 시기에 해당 책을 읽었다. 태양이 떠오름에 따라 바다와 하늘의 모호한 경계가 점차 선명한 수평선으로 변해가는 장면을 묘사한 대목이다. 작가는 최근의 장거리 비행 중 보았던 창밖 구름의 풍경을 떠올렸다. 끝없이 밀려오는 구름이 바다 위 파도 같기도 하고, 산처럼 보이기도 했다. 표면을 비추는 햇빛을 바라보며 서로 연결된 커다란 세계에 대하여 생각했다. 타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전 지구적 규모의 전염병에 대해서도 다시금 떠올려 보았다. 세상 속 모든 존재는 마치 가느다란 실로 연결된 것처럼,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도2.  
〈아홉 개의 눈〉(2021)  
캔버스에 유채  
25x25cm

김은정은 “매번 다른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구름을 그리는 행위’에 빚대어 본다.” 화면 속 구름은 일상에 내재한 유연성을 상징하는 한편 개인의 정서 및 관점의 다양성을 은유한다. 언제 어떤 구름이 나타날지, 그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알 수 없기에 미지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긍정적 요소이기도 하다. 작가는 모두가 연결된 세상 속에서 서로 다른 존재들을 유연하게 포용하자고 제안한다. 〈아홉 개의 눈〉(2021)<sup>2</sup>, 〈여름, 봄〉(2022)<sup>3</sup> 등에 해의 형상이 등장한다. 세상 어디서나 매일 뜨고 지는 해는 보편성의 상징이다. 다양한 구름 위에 빛을 비추어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김은정은 해의 형상에 삶의 지침이나 사회의 규칙들을 빚대어 본다. 화면 위에 여러 개의 해가 뜬다. 각자의 다름을 조명하는 태양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어야 한다.



도3.  
〈여름, 봄〉(2022)  
캔버스에 유채  
162.2x336.3cm

<sup>2</sup> 김은정의 작가노트 전문은 이 보도자료의 7-8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버지니아 울프, 『파도』, 박희진 역 (서울: 솔, 2019).

※ 전시 서문 및 작가의 글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이미지 사용시 [제공 학교재, 사진 양이언] 표기 부탁드립니다.

### 3. 작품 소개

대표 이미지

[사진 양이언]



〈봄을 쫓아〉(2022)  
캔버스에 유채  
193.9x130.3cm

〈봄을 쫓아〉(2022)의 화면 속 튼튼한 나뭇가지 위에 고양이 한 마리, 새 두 마리, 사람 한 명이 자리잡고 앉아 있다. 연약한 동물인 새들의 존재감이 화면 안에서는 가장 크다. 고양이는 가지 끝자락의 나뭇잎 사이에서 주위를 살핀다. 사람은 맨 발의 무방비한 상태로 나무 사이에 움츠린 모습이다. 사람의 형상이 유난히 작게 그려져, 동물들에게 둘러싸여 보호 받는 대상처럼 보인다. 서로 다른 네 존재의 시선이 교차한다. 다정한 눈빛이다.

최근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장마와 홍수, 가뭄, 폭설 등의 자연재해를 목도하며 자연과의 공생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화면 우측 하단에 크고 둥근 형상이 여럿 보인다. 부화하지 않은 커다란 알이 땅에 심긴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김은정은 알의 형상에 인간 존재를 투영해 본다. 인간의 가능성이 온전하게 부화할 수 있는 상태로 부풀어오르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공생이 필요하다. 알의 형상은 화면 중앙부에서 제비의 발 아래 납작한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땅으로부터 분리된 알이 불완전하게 부유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그 위에 발 붙인 제비처럼, 자연 속 벗들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머문다.



〈흰 눈 내린〉(2022)  
캔버스에 유채  
193.9x130.3cm

〈흰 눈 내린〉(2022)은 초여름 서울 근교에서 목격한 풍경을 그린 회화다. 초록의 나무 사이마다 앉아 있는 백로의 모습이 마치 흰 눈이나 구름이 내려앉은 것처럼 보였다. 무더운 여름 날의 환상적인 장면이었다. 백로는 숲이나 강 주위에 동지를 틀고 산다. 최근 도시 개발로 인해 본연의 서식지를 잃은 백로 떼가 서울 도심으로 동지를 옮겨 온 사례가 기사화되기도 했다. 도시의 사람들은 새의 배설물과 먼지에 의한 불편을 호소했다. 이들과 공존하기 위한 노력 또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식물원 내에 조류생태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공새집을 마련하는 등의 시도다. 김은정은 백로 무리 가운데 거니는 사람과 개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 여름철 흰 눈 내린 상상의 장면 속에 모두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모습이다.



〈읽는 사람〉(2022)  
캔버스에 유채  
193.9x130.3cm

〈읽는 사람〉(2022)에 등장하는 인물은 북아프리카 튀니지 여행 중 본 여인을 소재로 그린 것이다. 김은정이 목격한 아프리카는 평소에 상상하던 모습과 매우 달랐다. 팬데믹 직전의 여행이었던 탓에 더욱 신비한 기억으로 간직하게 됐다. 해변에 앉아 오래도록 책을 읽던 히잡 쓴 여인의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그로부터 삶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성실하게 이해하려는 태도를 엿보았다.

화면 속 인물의 뒤편으로 눈 덮인 산맥이 보인다. 하늘은 해 질 녘 어스름으로 붉게 물든 모습이다. 산자락 아래에는 정체 모를 그림자들이 불안하게 서성인

※ 전시 서문 및 작가의 글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이미지 사용시 [제공 학고재, 사진 양이언] 표기 부탁드립니다.

다. 인물이 앉은 자리 주위로 구름 같은 덩어리들이 부유한다. 빙하의 조각일 수도 있고, 구름의 그림자일 수도 있다. 이토록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인물은 그저 자신의 책 읽기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김은정은 “불확실한 변화들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읽어내는’ 사람이고 싶다”고 말한다. 미지의 안개를 걷어낼 방법은 사실 책 속의 우주 안에 있을지 모른다.



〈잠옷에서 탈출〉(2021)  
도자기, 12x5x2.5cm



〈이구룡〉(2021)  
도자기, 8.5x4.8x3.5cm



〈흰 이구룡과 해〉(2022)  
캔버스에 유채, 116.8x72.7cm

전시에 선보이는 7점의 도자 연작은 저마다 다채로운 상상력을 품고 있다. 〈잠옷에서 탈출〉(2022)은 연중 매일 같은 무늬의 옷을 입는 사람을 떠올리며, 피부 위에 무늬가 새겨진 모습으로 빚어냈다. 사람이 잠드는 밤에는 피부 위의 무늬들이 자유롭게 탈출할 것이라는 상상에서 작품 제목을 지었다. 김은정의 도자 작업은 회화의 화면과 호응하는 경우가 많다. 도자로 빚은 〈이구룡〉(2021)의 형상이 회화 작품인 〈흰 이구룡과 해〉(2022)의 화면 속 테이블 위에서 발견되는 식이다.

#### 4. 작가 소개

김은정은 1986년에 경상남도 거제에서 태어났다. 2011년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와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한 후, 2019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은정은 미술의 경계를 탐구하는 데 관심 가진다. 다양한 매체와 재료를 실험하고, 순수미술과 상업 디자인이 맞닿는 지점을 탐색한다. 문학, 음악 등 타 분야와의 다학제적 교류를 통한 작업을 구상 중이다. 인공지능, 3D 프로그램 등 새로운 매체 기술을 작품세계에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

김은정은 학고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서울), 가변크기(서울), 에이라운지(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선보였다. 학고재(서울),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서울), 한원미술관(서울), 신한갤러리(서울), 공간 카다로그(서울), 레인보우큐브(서울)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6년부터 '찬다 프레스'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그중 『난민돌기』(찬다프레스, 2021)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책방에 입고되어 있다. 2017년 일현 트래블 그랜트 수상 작가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 5. 전시 서문

## 우리가 만든 날씨

홍예지(미술비평)

“내 주변은 살며시 솟아올랐고, 숙박에서 벗어난, 새로 태어난 나의 정신이 그 위로 떠올랐다. 언덕은 먼지구름으로 변했으며 - 나는 구름을 뚫고 연인의 변용된 면모를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두 눈에서 영원이 쉬고 있었다.”<sup>3</sup>

연보라 나비 한 마리 하늘 위로 떠오른다. ‘어린 날개는 물결에 절어’<sup>4</sup> 푸르스름한 빛을 띤다. 그를 놀라게 한 바다의 깊이는 다음 순간 파도의 높이로 바뀐다. 하늘을 향해 산처럼 솟는 바다와 보이지 않는 바람을 타고 오르는 나비. 김은정의 그림을 보며 ‘프시케(psyche)’의 의미를 떠올린다. 오랫동안 프시케는 나비와 영혼, 정신을 함께 뜻하는 말로 쓰였다. 그렇다면 그림에서 나비는 ‘새로 태어난’ 정신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련을 통과한 정신은 날개 아래의 소란을 인식하면서도 휘둘리지 않는다. 오히려 한층 고양된 상태로, 구름을 뚫고 저 높이 올라간다.

올라가면 무엇이 펼쳐질까? <구름의 모서리>(2022)를 보면 하늘인지 바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풍경이 정신을 둘러싼다. 부드러운 크림이 섞인 분홍과 청명한 파랑이 임의의 경계선을 긋는 곳. 그곳엔 빙하인 척 눈속임을 하는 구름이 사방을 뒤덮는다. <읽는 사람>(2022)에서 한 여자는 구름을 방석처럼 깔고 앉아 책을 읽는다. 그가 읽고 있는 책은 ‘시간’이라는 책이다. 너무 고요해서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공간에,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만이 규칙적인 리듬을 자아낸다. 숨 하나에 1초가 흐르고, 두 눈 속에 영원이 담긴다.

‘읽는 사람’이 앉은 자리는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서로 접촉하는 지점”이다. 여기가 바로 “영혼의 자리”다.<sup>5</sup> 그의 몸을 받쳐주고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구름이 아니라 물이다. 구름은 물이 주는 유동적인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물은 여자의 몸을 “어머니처럼 흔들어준다.”<sup>6</sup> 잔잔히 흔들리는 물결에 태곳적 기억이 흘러들어와 섞인다. 꿈꾸는 자의 영혼은 지리적, 시간적 경계를 넘어 자유로이 떠다닌다. 원래 어느 해질녘, 바닷가였던 곳이 하늘 속 몽상의 무대로 바뀐다. 물과 하늘의 “질료적 연속성”<sup>7</sup>에 의해, 그리고 화가의 촉촉한 상상력에 의해 이런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 몽환적인 풍경에서는 내면에 몰두하는 한 여자와 그를 바라보는 또 다른 여자, 즉 화가 자신의 감정이 한데 뒤섞여 어디에도 없는 날씨가 만들어진다.

김은정의 그림 속 인물들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만 스스로 날씨를 만들기도 한다. 그들은 공중으로 흩어지는 연기 속에서, 휘날리는 눈송이 속에서, 문득 새 정신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고 변화를 일으킨다. 바깥 날씨가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처럼, 내면의 날씨도 매 순간 달라진다. 그 미세한

<sup>3</sup> 노발리스, 『밤의 찬가 / 철학 파편집』, 박술 옮김, 인다, 2018, p.15.

<sup>4</sup> 김기림, 『바다와 나비』, 1939.

<sup>5</sup> 노발리스, 앞의 책, pp.40-41.

<sup>6</sup> 가스통 바슐라르, 『물과 꿈』, 김병욱 옮김, 이학사, 2020, pp.213-214.

<sup>7</sup> 위의 책, p.216.

## ※ 전시 서문 및 작가의 글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이미지 사용시 [제공 학교재, 사진 양이언] 표기 부탁드립니다.

움직임을 알아채는 순간은 우연한 마주침이나 반복에 균열을 내는 사소한 사건과 관련될 것이다. 나비의 날갯짓처럼 아주 여린 세기로 시작된 변화는 어느새 내면의 풍광을 뒤엎고, 나아가 바깥 환경 전체의 리듬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날씨에 참여한다.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다른 말로 하면, 지구라는 공통된 기반 위에서 객관적으로 공유되는 날씨가 있고, 그에 반응하여 시시각각 일어나는 주관적 날씨들이 있다. 이 두 종류의 날씨가 서로 교차하며 무수한 분위기가 생성된다. 우리는 바로 이런 분위기의 순환 속에서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간다.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우리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는 날씨는 언어로 명확히 서술되기 어렵다. 그래서 그림이 필요하다. 김은정은 날말이라는 틀에 날씨를 가두는 대신, 화폭을 펼쳐 네 모서리를 넘어서는 자연의 사이클을 불러낸다. 예를 들어 <봄을 쫓아>(2022)에는 늘 새로운 바람이 드나들고, 바람을 따라 영롱한 깃털을 지닌 새들이 날아든다. 새들의 노래가 맑은 공기를 울리면, <겨울숲과 고양이 셋>(2022)에서처럼 길 가던 고양이의 털이 바짝 곤두선다. 또 <겨울산책>(2022)에서 눈 덮인 길을 걷던 두 사람은 발자국을 들여다보거나 싹이 오른 나뭇가지를 올려다보며 초봄에 가까워진 날씨를 눈치챈다. 각각의 풍경에는 말이 필요 없다. 단지 날개 달린 듯 가벼운 손짓이, 내면과 외면을 섬세하게 잇는 시선이 있을 뿐이다.

변화무쌍함을 변덕스러움으로 여길 때, 변화는 우리 손을 떠나 있는 것이 된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채색된 변화는 일상을 위협하는 훼방꾼처럼 여겨진다. 그에 맞서 동일한 리듬을 고수하는 것이 우리의 고집스러운 반응이다. 날씨는 이런 변덕스러움의 카테고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예처럼 보인다. 그 자체로 경계와 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 카테고리 안의 다른 항목들을 아우르는 적절한 비유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 하여 날씨를 본다면 -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매일매일 해석하고 행동함으로써 환경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한다면, 날씨는 우리 손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된다. 삶에 통합된 날씨는 우리가 겪는 다양한 사건과 만남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밀한 감정과 기분, 느낌을 다른 이와 공유하는 매개체가 되어준다.

김은정의 《매일매일 ( )》은 바로 이런 시각에서 날씨를 바라보며 일상을 가꾸어 나간 기록이다. 화가의 몸을 감싸는 청량한 공기와 높이 떠 있는 구름,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산책길에 만난 이웃과 고양이들이 사계절을 함께 통과하는 여정을 담았다. 마치 한 권의 시집처럼, 화면과 화면을 연결하는 자유 연상이 미묘한 아름다움의 세계를 열어 보인다. 김은정의 그림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조금은 유연해진 마음으로, 다가올 새 계절의 즐거움을 기다린다.

## 6. 작가의 글

### 구름의 모서리

김은정

1.

아주 밝은 빛, 때론 깊은 어둠, 그 사이에 무수히 존재하는 공간.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 적절한 고도를 찾아 비행하는 일. 과일 속 벌레처럼 뇌우를 품은 구름, 그 위를 날아. 나비와 나방의 차이는 뭘까. 얇은 모양이 달라. 예뻐와 추함. 구분은 쉬워. 낮과 밤. 그들은 다른 시간을 살아. 꽃을 피우는 몸짓과 알레르기 유발하는 것. 하지만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있어. 왜 무엇이든 어떻게. 쉽게 단정할까. 그 관점은 누구의 것이야? 지구를 관통하는 나무가 있어. 너무 거대해서 뿌리가 반대편까지 자라났어. 잔뿌리가 가득해. 자꾸만 자라려고 하는 거야. 더, 더, 많이 가득히. 그게 좋아. 원래 그렇거든. 그럼 반대편으로 솟아난 가지는 뭐라고 부르기로 할까. 끝말잇기 같은 그림들. 그림을 넘어 그림으로 이동하는 그림. 구름모양 말풍선. 하얀색의 언어.

2.

2022년 여름은 평균치보다 비가 많이 내렸다. 삶은 새로운 날씨와 함께 변모한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공통의 경험' 보편적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을 날씨에 빚대어 본다. 구름(연기)은 피할 수 없는 순간이나 상황을 은유한다. 기체인 동시에 액체, 그리고 형상을 지닌 덩어리는 시시때때로 모양을 달리하여 아주 작은 틈을 넘나든다. 국경을 넘나드는 구름은 명확하지 않은 정체성을 가져 모호하고 제어할 수 없다.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반복되는 일.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일은 단편적으로 보았던 걸 다시 짜 맞추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시선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일렁이는 나무와 영킨 가지, 광활한 하늘과 땅의 거대한 망각. 푸른 베일이 미끄러지듯 벗겨지면 깨어나는 도시. 흙길을 밟으며 언덕에 오른다. 그 끝에서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걷다 해질녘의 기분에 대해 생각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대수롭지 않은 매일. 반복, 새 아침이라 이름 붙이는 일.

3.

태양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다. 바다는 하늘과 구분이 되지 않았다. 바다에는 마치 형겅에 주름이 잡힌 듯 약간 접힌 자국이 있을 뿐이었다. 파도는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계속하고 있는 잠든 사람처럼, 멈췄는가 싶으면 다시 숨을 내쉬고 있었다. 수평선은 서서히 그 모양이 선명해지고 있다. 오래된 포도주 병의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유리병이 선명한 초록빛이 되듯이.<sup>8</sup>

## 7. 작가 약력

1986 경상남도 거제도 출생

201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 졸업

201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 석사 졸업

<sup>8</sup> 버지니아 울프, 『파도』, 박희진 역 (서울: 숲, 2019), 9.

※ 전시 서문 및 작가의 글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이미지 사용시 [제공 학교재, 사진 양이언] 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개인전**

**2022 매일매일 ( ), 학교재, 서울**

- 2021 가장 희미한 해,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 2019 홈커밍, 가변크기, 서울
- 2018 연기나는 사람, 에이라운지, 서울

**단체전**

- 2022 사사로운 궤적, 신한갤러리, 서울  
살갓들, 학교재, 서울
- 2021 페리지원터쇼 2021, 페리지 갤러리, 서울  
시리얼즈, 레인보우큐브, 서울  
작은 모닥불 앞에 둘러앉은 소원들, 공간 카다로그, 서울  
BGA 쇼룸, BGA 마루, 서울  
아이콘, 학교재, 서울
- 2020 구름의 일각, 공간서울, 서울  
반짝이는 소란,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 2017 일현 트래블 그랜트, 일현미술관, 양양  
나의 영토, 의외의조합, 서울  
멘토멘티, 한원미술관, 서울
- 2016 버티컬 라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서울  
낮선 이웃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프로젝트**

- 2020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피죤밀크 포스터, 아르코 아트토크 (온라인 전시)
- 2017 서울은 미술관, 팝업, 무인예술서점 <쫓>, 서울
- 2016 동북부 미술대학 연계 발굴 프로젝트,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 2013 잃고 싶지 않은 것들, 오픈베타공간 반지하, 서울

**출판**

- 『난민들기』(찬다프레스, 2021)
- 『잠』(찬다프레스, 2019)
- 공저, 『캐비넷. Vol. 8: 예술가 여행이야기』(일현미술관, 2018)
- 공저, 『탄생 쫓 책방』(찬다프레스, 2017)
- 공저, 『지면전시』(스페이스윌링앤딜링, 2015)

**수상**

- 2017 일현 트래블 그랜트, 일현미술관, 양양